

“군민정치시대 열겠습니다” 양돈농가 차단방역 일제점검

황인홍 무주군수 재선 도전 “혁신성장과 지역인재육성, 군민역량 강화 주력”

황인홍 무주군수가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지고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했다. 황 군수는 지난 25일 무주군 주재기자실에서 “무주군민께 보답하는 길은 무주다움의 완성과 군민행복의 연속선이라는 생각으로 제46대 무주군수에 도전하게 됐다”며 재선의지를 밝혔다.

이날 오후 4시 선관위에 무주군수 후보 등록을 마친 황인홍 예비후보는 “민선 7기를 되돌아보면 매 순간이 도전의 연속이었고 결단의 나날이었다”며 “공을 들였던 만큼 낙심하던 때도 있었지만 그 시간은 정직했고 방향 역시 옳았다고 확신을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대로 민선 8기에는 ‘군민을 섬기며 군민이 주인인 군민정치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한 황인홍 예비후보는 “황인홍 군정의 핵심비전은 바로 무주를 무주답게 군민을 행복하게”며 “민선 7기 4년간 쏟았던 그 치열했던 시간과 노력은 무주다움을 완성하고 군민행복을 지속시킬 수 있는 동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선 7기의 소중한 결실을 바탕으로 8기에도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며 “무주다움은 무주만의 역사와 문화, 반딧불이와 태권도, 그리고 산골이라고 하는 차별화된 가치를 통해 완성하고 군민행복의 연속은 무주다움을 기반으로 무주를 활기



황인홍 무주군수가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지고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했다.

넘치는 삶터, 희망 가득한 일터, 편안함 느껴지는 쉼터로 가꿀 때 누릴 수 있다”라고 공언했다.

이를 위한 민선8기 핵심공약으로는 군민모두가 즐겁고 국민 모두가 감탄하는 ‘세계적인 으뜸관광’, ‘다함께 키우는 건강가득 소득농업’, 모두가 누리는 ‘함께하는 주민복지’, ‘다 같이 만드는 지역맞춤 특색개발’, 미래로 향하는 ‘움직이는 자치행정’ 실현을 제시해 관심을 모았다.

또 민선 8기 행정 분야의 핵심가치를 ‘발로 뛰는 행정, 섬기는 행정’이라고 밝힌 황 예비후보는 “혁신성장과

지역인재육성, 군민역량 강화에 주력하겠다”라며 “민선 7기에 우리가 함께 씨 뿌리고 꽃을 피운 무주다움과 군민행복이 민선 8기에는 함박웃음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손잡아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황인홍 예비후보(66)는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며 그 해 7월부터 민선 7기 제45대 무주군수직을 수행해왔으며 이외 전국 농어촌 지역 군수협의회 부회장(2018.9.~현재),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공동회장(2018.10.~현재) 등도 역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과수화상병 유입 방지 총력

농가 대상 사전방제 지도·홍보활동 강화

무주군은 관내 사과·배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개화기 약제 살포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는 등 과수화상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기존 1회 방제에서 올해부터 3회 방제가 의무화 되면서 사과·배 농가들이 반드시 시기에 맞는 방제에 참여해야 한다.

이에 군은 관내 959 농가를 대상으로 화상병 약제(코사이드, 세리펠)공급을 완료했으며, 과수 화상병과 관련된 리플릿 2,000부 배부, 문자발송 3,000건, 농업인 교육 6회를 통해 화상병 방제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개화기 방제 시기의 경우 꽃이 10~20%핀 시점에서 1차 방제를 추진하며 5~7일후 2차 방제를 추진하면



화상병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과수화상병은 고온성 세균병으로 5~7월경 발생하는데, 발병된 나무는 급격히 고사하며 잎과 가지, 줄기 등의 조직이 마치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처럼 검게 마르게 하는 식물 전염병이다.

전염속도가 빨라 이 병이 발생한 과

수원은 식물방역법에 의거 방병주 뿐만 아니라 과원 내 식재된 나무를 매몰해야 하는 등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과수화상병 유행예방 예방 등 사과·배 과원을 대상으로 정밀 예찰을 실시하고, 의심증상 농가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오는 7월 중순까지 집중 예찰 활동을 실시하고, 진단키트를 활용해 의심증상 발생 시 즉시 현장 진단까지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종철 기술연구과장은 “과수화상병 관내 유입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농업인들께서는 청결한 과원 관리와 적기 약제방제로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과수화상병 의심증상 발견시에는 무주군농업기술센터(320-2856) 또는 과수화상병 대표 신고전화(1833-8572)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아프리카돼지열병 선제적 대응 위해 추진

장수군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출지역이 경기·강원지역을 넘어 충북 보은, 경북 상주까지 확산하고 백두대간을 통해 남하 위험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양돈농가 차단방역 일제점검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군은 관내 양돈농장 방문을 통해 농장 출입 통제·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 준수 및 방역시설 가동·운용 상황을 점검하며, 더불어 강화된 방역시설(전실, 내부울타리 등) 설치 진행 상황을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방역시설 설치와 함께 양돈농가 축사 매일 소독, 외부인 축사 출입 통제 등 현장 방역을 철저히 지도, 감

독한다.

봄철을 맞아 야생멧돼지 개체 수 및 입산객 증가 등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의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축산차량이 농가·시설 방문 전 세척·소독이 될 수 있도록 거점소독시설을 상시 운영하고, 양돈농가에 생석회 24,000kg, 소독약품 448kg을 배부한다는 계획이다.

이종진 축산과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 봄철 영농활동 자제와 영농장비의 농장 내 반입 금지, 축사 소독,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손씻기, 농장 내외부 소독 및 출입 차량, 사람 통제 등 방역수칙 준수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서정호 前 청와대 행정관, 무소속 무주군수 출마 선언

서정호 전 청와대 행정관이 25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6월 1일 지방선거에 무주군수 출마를 선언했다.



서정호 씨는 지난 대선 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위해 국민참여 플랫폼 전북본부장, 민생경제단 단장, 국민통합 전북본부장, 완진무장지역 선대본부 부위원장 등의 직함을 갖고 투혼을 발휘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당의 강령에 부합하는 쇄신과 혁신을 바란 기대를 저버렸으며, 더불어민주당을 떠나 무소속으로의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1일 무주반딧불시

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를 선언한 바 있는 서정호 예비후보가 최근 불거진 “교육이수기간 인정문제”의 행태를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정호 무주군수 예비후보는 “무주군의 큰 변화를 위해 행정전문가인 본인이 적임자”라 강조하고 지역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서는 몸담았던 정당을 떠나서도 가능하다고 확신하기 위해 무소속으로 출마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서정호 예비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이 언제라도 온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각고의 노력과 혁신이 수반된다면 재입당을 고려해 보겠다”며 탈당의 아쉬움을 감추고 자신의 지지를 호소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홍삼한방클러스터사업단, 중국 무역사절단 선정

진안군은 25일 (사)진안군홍삼한방산업클러스터사업단(단장 김경배, 이하 사업단)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2022년 전북 중국서부 무역사절단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북지역본부(이하 중진공)는 전북도와의 협업을 통해 수출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 및 인플루언서 홍보 등 해외 수출에 필요한 사전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발굴한 중국서부 무역사절단은 진성 바이어를 기반으로 7월에

서 11월 중에 현지로 파견하게 된다.

사업단이 최종 선정됨으로써 1인 할당 50% 지원, 수출 마케팅 전문 통역 제공, 현지 파견 이후 계약체결 지원 등 진안홍삼 해외 수출 판로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받게 된다.

김경배 단장은 “중국 무역사절단으로 참가해 진안홍삼이 미개척 중국시장에도 진출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진안홍삼 브랜드를 알리고 수출을 통해 진안군의 가공업체 및 인삼농가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는 초석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진안=유태만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군, 꿀벌 사육농가에 질병 예방약품 배부

진안군은 관내 꿀벌 사육업 등 록 농가를 대상으로 질병 예방 약품을 무상으로 배부한다.

군은 최근 기후, 환경 변화로 인해 꿀벌 전염병 발생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 꿀벌농가의 안정적인 사육 기간 조성을 위해 관내 꿀벌사육 등록 농가 101농가에 약품을 지원한다.

배부약품은 응애류, 노제마병, 남충병아부패병 예방 약품으로 총 4종으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꿀벌 사육업 등록 농가는 25~29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전화 문의 후 방문해 수령하면 된다.

기간이 지난 후에도 수령은 가능하다. /진안=유태만 기자

무주군, 불법 옥외광고물 한시적 양성화·정비 추진

무주군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관내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해 한시적 양성화 및 정비를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양성화 대상이 되는 불법 옥외광고물은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의 4종류다.

군은 기존에 설치된 간판 중 허가·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간판 설치 시 적법하게 허가를 받지 않은 간판에 대해 오는 5월부터 6월까지 자진신고기간을 정해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앞서 군은 이달 말까지 정비계획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관련규정에 맞는 표시방법으로 설치된 간판은 오는 7월부터 8월까지 현지 확인 후 양성화 하게 되며, 관련규정에 맞는 표시 방법으로 설치되지 않은 간판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즉시 철거 또는 1년 이내 유예기간을 부여해 변경 또는 철거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 후 그 즉시 철거명령을 통보하고 철거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처분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불법 옥외광고물이 정비될 경우 쾌적한 도심거리로 변모되면서 무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청정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